

# ‘포어라움’(Vorraum)의 간접권력에 대해\*

윤인로\*\*

**초록** 이 논문은 정치에서의 결정에 은밀한 영향을 끼치는 ‘간접권력’을 ‘포어라움(결정권자의 방안에 있는 대기실)’과 더불어 분석한다. 1장에서 포어라움은 주권적 결정을 앞질러 그런 결정의 선택지 자체를 선별하여 제공하는 선제적(先在的)이며 선재적(先制的)인 간섭력으로서, 통치의 부수적 이윤을 축적하는 탈정치적인 힘의 형태로서 분석된다. 2장에서는 ‘누가 결정권에 직접 액세스할 수 있는가’라는 칼 슈미트의 질문을 중심으로, 실러의 5막 극시 『돈 카를로스』에 등장하는 고해사제와 총독의 연합체를 성+속의 간접권력적 포어라움으로 독해한다. 그 과정에서 그런 성+속의 포어라움이 포사 후작이라는 인물의 정치론/신론(神論)에 의해 어떻게 작동 정치되는지가 분석될 것이다. 3장에서는 신의 대행자인 포사 혹은 메시아적인 포사의 행동이 정치적인 것에서의 직접성을 회복시키는 힘으로 기능하는 과정과 그런 힘을 미연에 억지하면서 신 앞의 포어라움을 구축한 또다른 성+속의 간접권력체(대심문관과 왕의 타협체)를 분석한다. 4장에서는 간접권력적 억지자(카테콘)의 힘에 내재된 양가성을 문제화하기 위한 슈미트적 토대로서 ‘인간은 인간에 대해 인간이다(호모 호미니 호모)’라는 표어가 진정한 결정의 조건과 관련하여 제시될 것이다.

**주제어** 섭정적인 것, 포어라움, 간접권력, 메시아적인 것, 대심문관, 카테콘, 『돈 카를로스』

---

\* 심사자 세 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 특히, 참고가 될 수 있는 자료들과의 “생산적 대화”를 권해 주신 심사자 한 분의 긴 독후감을 읽으면서, 뜻있는 독자의 깊은 반향을 얻었다는 느낌이었다. 이 글에 뒤이어 언젠가 ‘포어라움과 비스마르크’의 맥락을 다룰 때 그런 대화가 가능할 수 있도록 애쓰겠다는 말씀을 전하고 싶다.

\*\* 한국연구재단 학술연구교수

## 1. 직접적 권력과 간접적 권속말: 결정권자의 방으로 이어진 통로

“거미”와 “거미줄”, 이는 주권자와 비밀정보원의 관계를 표시하기 위해 홉스가 『시민론』에서 사용했던 은유다. 그것은 최고 통령권의 의무를 수행하는 데에 필수적인 힘의 관계를 나타내며, 그 의무는 이렇게 정식화되어 있었다: “통령권의 모든 의무는 다음과 같은 유일한 말씀[명령] 안에 포함되어 있다. **살루스 포플리 수프레마 렉스(Salus populi suprema lex)**[인민의 구원이 지고(至高)의 법이다].”<sup>1</sup> 최고법으로서 인민의 안전과 구제, 이를 위해 필요한 첩보의 거미줄. 그런데 그 은밀한 그물망을 통해 통치의 빛을 얻고 그 빛으로 광합성하는 주권자라는 홉스적 관점은, 그 같은 빛·정보·정보원이라는 매개를 통하지 않고서는 주권자의 해석과 결정이란 행해질 수 없다는 것을, 정탐·첩보활동이라는 간접적 매개·수단이 필수불가결한 것이 될 때 주권자의 결정이란 결코 직접적이거나 순전한 것일 수 없다는 점을 가리켜 보인다. 홉스의 독자로서 슈미트는 대담의 형식을 취해 말한다:

모든 것들에 앞서, 인간 권력의 내적인 변증법을 보게 되는 것이죠. 권력자에게 의견을 개진하거나 정보를 제공하는 사람은 그가 어떤 사람이든 [...] 순간의 결정이 한 손에 달린 인간 개인에게 단지 인상과 모티프를 중

1 Thomas Hobbes (1647), *Elementa Philosophica de Cive*, Amsterdam: Apud Ludovicum Elzevirium[로마 국립도서관 스캔본. 초판은 1642년 파리에서 출간], p. 209. ‘거미’와 ‘거미줄’의 은유는 p. 213. 위의 한 대목은 2부 13장 「**최고 통령권**[통수권·사법권] **수행 summum imperium administrant의 의무에 대해**[최고 통치권-관리(자)의 임무에 대해]」로부터 인용한 것이며, 다음 두 번역본의 해당 대목을 참조하여 달리 옮겼음. 라틴어판을 저본으로 삼은 T. Hobbes (1998), *On the Citizen*, edited and translated by Richard Tuck, Michael Silverthorn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651년 영어판[해적판]의 현대어본을 저본으로 삼은 토마스 홉스(2013), 이준호 역, 『시민론』, 서광사.

개하는 것만으로 충분합니다. 때문에 직접적 권력은 그 즉시 간접적인 껍속말들(Einflüssen(영향))에 복속되는 겁니다.<sup>2</sup>

진위가 확실치 않은, 정확한 전망이 불가능한, 그런 한에서 결정적 내기를 걸었을 때의 수지타산을 가늠해야만 하는, 그렇게 정치적 필요의 만족과 그에 따른 위험부담이 혼재하는, 무엇보다 막대한 양으로 다양한 경로를 거쳐 밤낮없이 올라오는 정보들·제안들, 주권적 결정을 위한 자료들·질료들. 그것들을 선별하고 그 가치와 효력을 계측·가공·재구성하여 보고할 수 있는 자가 갖게 되는 권력·간접권력, 달리 말해 주권자의 결정에 접근할 수 있는 통로를 점유함으로써 발현되는 간접적 영향력이란 주권자의 결정에 앞서 그 결정의 선택지 자체를 앞질러 설정할 수 있는 힘, 선-결정적인 결정의 힘이다. 속삭여지면서 껍속으로 들어가는(einflüsteren) — 이 독일어 낱말은 i) 무대 위의 배우에게만 들리도록 몰래 일러지는, ii) 프롬프터(Souffleur)가 무대의 어느 숨겨진 곳에서 나지막이 읽어 주는 대사를, iii) 그런 식으로 불어넣어지고 부추겨지는, 나아가 iv) 유도되며 교사(教唆)되고 있는 상태를 뜻하는바 —, 그렇게 중개되고 주선되는 숨은 영향력에 의해 주권적 결정의 직접성은 포위되고 포획된다. 이에 분노했던 여러 주권자는 자기 아래의 '고문관'이 올리는 간접적 정보들의 의도·범위·경향·목적 을 분쇄하고자 했다.

이와 관련하여 칼 슈미트는 두 인물의 사례를 든다. 첫째, 마호메트의 후계자 칼리프 하룬 알 라시드[재위: 786~809. 알 라시드는 '정의로운 자'라는 뜻]. 그는 늦은 밤 평민으로 변장하고선 바그다드의 선술집에서 왜곡 없는 순정한 정보를 손수 찾아내고자 했다. 슈미트는 주권자의 그같은 직접적 정보화

2 Carl Schmitt (1994), *Gespräche über die Macht und den Zugang zum Machthaber*, Berlin: Akademie Verlag, p. 18. 「권력과 권력자로의 접근에 관한 대답」이라는 제목의 이 글은 "J. (젊은이: 질문자)"와 "C. S. (응답자)" 간의 대화 형식으로 1954년 6월 및 11월에 방송된 라디오 대본 텍스트이다.

동이 기이한 방법에 과도하게 매몰됨으로써 실효성이 떨어지게 됐다고 유감을 표한다[홉스라면 그 칼리프가 “권리(*Jus*)와 집행(*exercitium*)”, ‘군법’과 ‘통치’ 간의 이접적인 관계를 제대로 살리지 못했다고 평가했을 것이다<sup>3</sup>]. 둘째, 프리드리히 대왕(재위 1740~1786). 늙은 그는 자신의 결정권에 영향을 미치는 측근들·간접권력들을 불신과 의구심의 눈초리로 살피게 되었고, 오직 ‘시종’(侍從) 프레더스도르프만이 왕의 대화 상대자가 되었다. 그 과정에서 슈미트가 주목하는 것은 모종의 역설인데, 간접권력을 멀리하려는 왕의 의지에도 불구하고(그런 왕을 향한 시종의 절대적 순종에도 불구하고) 왕 결의 유일한 측근이라는 거리·자리·장소는 다름 아닌 그 시종을 간접적 영향력의 최정점에 위치하게 만든다는 점이 그것이다.

다시 말해, 주권자와 측근이 맺는 권력관계는 그 둘의 주관적 의도와는 관계없이 독자적인 운동준칙을 따라 존립하는바, 프리드리히 대왕의 사례는 주권자가 자기 결정의 순도와 효력을 증대시키고자 하면 할수록, 그러니까 주권적 결정을 지탱하는 직접성의 강도·한도·방법·경로를 증강시키고자 하면 할수록 간접권력에 대한 의존이 심대해지고 마는 주권관계의 딜레마를, 관계적 주권의 역설을 보여 준다. 그런 역설이 정식화되고 있는 것이 다음 한 대목이다. “권력자 그 자신과도 맞서 있는 모든 권력의 객관적인

3 백락을 드러내기 위해 옮겨 보자면 다음과 같다. Hobbes (1647), p. 208: “최고 통령권에 있어 그 권리와 집행은 구분되어야 한다. 둘은 실제로 분리될 수 있는바, 예컨대 그런 권리를 가진 자가 법정쟁의에 대한 판결 혹은 사물(事/物)들에 대한 심사숙고를 행할 수 없거나 행하고 싶어 하지 않을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때로 왕은 늙고 병들어 아예 일을 처리할 수 없게 되거나, 통령권을 직접 행사할 수 있음에도 대신들(시종들)과 고문들을 뽑아 임명하는 데에서 만족하며 그들을 통해 통령권을 행사하는 쪽이 더 적절한 것이라고 판단한다. 그렇게 권리와 집행이 분리되어 있을 때 키위타스(나라/도시)의 다스림은 신에 의한 세계의 질서정연한 다스림과 비슷한바, 전체의 제1동인(*primus omnium motor*, 모든 것의 시초-발동자)으로서의 신은 제2원인들의 질서잡음(안배·편성, *ordinem causarum secundarum*)을 통해 자연스레 결과를 이끌어 내기 때문이다. 이와 달리 다스림의 권리를 점유한 자가 모든 재판과 심의와 공공적 행위에 몸소 참여하고자 할 때, 통치수행(행정)은 신이 자연의 안배를 넘어서 모든 질료에 스스로를 즉각 접합시키는 것과 같이 되고 만다.

자율성(고유법칙성), 인간-권력자라면 모두가 피할 수 없이 휩쓸려 들어가는 권력과 무력함(Macht und Ohnmacht)의 내적인 변증법이 바로 그것입니다.”<sup>4</sup> 권력자의 자립적 의지와 타인의존·경로의존, 외양적 화려함과 비애, 직접적 자기 관찰과 간접화상상태에서의 자기 소외, 이것들이 권력과 무력함의 변증법을 함께 가동시키는 관계항들이다(혹은 그런 변증법의 가동으로 산출되는 주권관계의 변양태가 그것들이다). 인간-주권자라면 모두가 피할 수 없고 면할 수 없는 그 변증법, 그것의 근원이자 산물, 알파이자 오메가를 표시하는 것으로 자리매김해 놓게 되는 개념이 있다. 간접권력의 ‘포어라움’[Vorraum, 앞공간·대기실·대합실·(현관)전실]이 그것이다.

직접적인 권력의 모든 공간 앞에는 간접적인 꺾속말과 계발트들 Gewalten[폭(권·위)력들]의 포어라움이 형성되어 있는데, 거기에는 권력자의 귀로 이어진 진입구와 권력자의 영혼으로 들어가는 통로Korridor가 있습니다. 그런 포어라움, 그런 통로 없이는 인간의 권력 역시도 있을 수 없습니다.<sup>5</sup>

저 『천일야화』의 칼리프에 대해 ‘고문관’(Ratgeber)이 그랬던 것처럼, 그리고 프리드리히 대왕에 대해 ‘시종’(Kammerdiener) 프레더스도르프가 또한 그랬던 것처럼[일설에 따르면 그 시종은 왕의 침실(Schlafkammer)에 자유로이 출입

4 Carl Schmitt (1994), p. 17.

5 Carl Schmitt (1994), p. 18. 이 ‘포어라움’에 초점이 맞춰진 선행연구와 관련해서는 오타케 코지, 『공개성의 근원』(줄역·공역, 난장출판, 근간)의 6장을 참조. 본 논문과 더불어 게재되지는 못했지만 연작 형식을 이루고 있는 글로서, 필자는 포어라움의 특정 계보를 ‘비밀과 통치의 관계’라는 관점에서 『리바이어던』 속표지 이미지의 정치도상학적 내용을 중심으로 분석해 보았고, 포어라움에서 은밀히 전달되는 ‘간접적인 꺾속말’, 그 간접권력의 한 가지 양태와 관련하여 추기경 벨라르미노의 간접권력에 대한 홉스의 논박을 다뤄 보았다. 현재적 주권에 개입하는 교황의 보편적 간접권력의 역사를 정리한 것으로는 Marin Terpstra (2013), “The Political Theology of a *Potestas Indirecta*,” *Aspects of Christian Social Thought* Vol. 41, pp. 133-151을 참조.

했던 동성 연인이기도 했다], 포어라움은 주권적 결정을 앞질러 그것에 대한 간섭력·섭정력(攝政力)으로 발현하는, 그럼으로써 통치의 부수적 이득을 축적하는, 그렇게 정치를 부차화·사사화하는 간접권력의 선제적(先制的)·선재적(先在的) 시공간이다. 그것이 ‘공무상의 공용응접실’인 동시에 ‘사적인 별실’[Kabinett, 내각·추밀원(樞密院)]이기도 할 때, 포어라움은 외부로 드러나는 공식적 제안rat과 내밀하게 비밀화되는 자문[Geheim-rat(추밀-고문)]이 때에 따라 적정선에서 조절되고 배합되는 작은방·딸린방(Kammer)이며, 그런 한에서 그것은 공표된 주권적 결정을 앞질러 선취하는 선-결정의 암실(Dunkelkammer)이고, 몸져누운 주권의 ‘병실’(Krankenzimmer)을, 마비된 주권=영혼의 영안실(靈安室, Mortuarium)을 가리켜 보인다. 결코 우회할 수 없는 포어라움의 정치적 토포스·장소성, 반드시 거쳐야만 하는 간접권력의 노모스·매개성.

그런 힘-장소의 이름을 두고 ‘대기실’(Antichambre)이라고 부르든 ‘뒷계단’이나 ‘결-공간’ ‘아래-공간’으로 부르든 간에 문제의 상황과 본질은 변하지 않는다. 1954년도 냉전 시기 분단 독일의 간접적 폭(권/위)력에 대한 슈미트의 비판은 1926년도 바이마르 공화국 의회를 대상으로도 행해지고 있었던바, 그는 1861년 근대 이탈리아 통일 투쟁[리소르치멘토(재흥)]의 3대 주역 가운데 하나인 카보우르 백작이 의회주의를 옹호했던 한 문장 — “최선의 대기실들Antichambres[딸린 방들]보다는 극악한 방Chambres[침실·의회] 쪽이 여전히 더 낫다”라는 한 문장 — 을 인용한 다음, 카보우르가 설정한 대립 구도의 시효는 소멸됐다고, 이제 의회란 권력의 포어라움과 동질적인 것이 됐다고 덧붙인다: 현재 의회 그 자체는 비가시적인[자취를 감춘] 권력자의 사업소들·위원회들 앞에 있는 거대한 대기실Antichambre[부속실]이라고 하겠다. [...] 누가 그런 방식의 공공성[공개성]을 여전히 진실이라고 믿겠는가? 누가 위대한 ‘연설무대’로서의 의회를 여전히 진실이라고 믿겠는가?<sup>6</sup>

6 Carl Schmitt (1926), *Die geistesgeschichtliche Lage des heutigen Parlamentarismus*, 2.

진정한 공공성·공익을 창출하기 위한 대표들의 연설과 설득, 그 공개된 토론의 향연은 선악이라는 척도 너머의 이윤계산적 간접권력으로, 달리 말해 침실로서의 의회에 드러누운 사적 이윤의 대리직들·과견원들의 잠꼬대로 변하고 있었다. 입법적 절충과 타협의 그 잠꼬대란 다름 아닌 이익을 위한 피의 투쟁과 사적인 축적 욕망의 무의식으로 발현되고 관철되는 간접적 게발트의 합법형태였다.

## 2. 성(聖)+속(俗)의 간접권력: 누가 매개 없이 액세스할 수 있는가?

홉스가 말하는 (추밀-)고문관, 혹은 (뒤로 숨은) 조언자는 주권의 기억 장치에 간여한다. 『리바이어던』의 첫 페이지에서 읊기자면 다음과 같다: “인공적 인간[리바이어던]이 알고 있어야 할 내용들을 제안하기에, **조언자들(counsellors)**은 그의 **메모리(memory)**이다.”<sup>7</sup> 결코 완전하게는 그 모습을 드러내지 않는 카운슬러들, 숨은 자문역, 추밀(樞密-고문)역, 중추적 통치비밀의 연관자들, 주권적 결정에 간여하는 비밀화된 핵심관계자들, 암약하는 그들의 간접적 폭(권/위)력이 『리바이어던』의 저 유명한 속표지에 중앙에 그려진 장막·베일로 가려져 있다. 그렇게 감추어진 조언들로 누적되고 확장되

---

Auflage, Berlin: Duncker & Humblot [초판 1923], p. 12. 국역본을 참조하되 달리 옮김. 칼 슈미트(2012), 나중석 역, 『현대 의회주의의 정신사적 상황』, 길, p. 20. 카보우르의 한 문장은 불어로 인용되어 있으므로 글자체를 달리 표기했다. 반복하건대, 프랑스어 chambre는 방·침실·법정·의회 등등의 뜻을 가졌다.

7 Thomas Hobbes (1651), *Leviathan or The Matter, Forme and Power of a Commonwealth Ecclesiasticall and Civil*, London: Andrew Crooke[스미소니언 연구소 스캔본], p. 1(「intro」). 다음 두 판본의 해당 대목을 참조하여 달리 옮겼음. T. Hobbes (2012), *Leviathan*, Edited by Noel Malcolm, The English and Latin Texts, Clarendon Edition of the Works of Thomas Hobbes, Oxford: Clarendon Press; 토머스 홉스(2008), 진석용 역, 『리바이어던』 1권, 나남.

는 리바이어던의 메모리, 즉 결정과 집행에 직결된 국가적 기억들의 축적상태는 아무나 접근할 수 없는 통치비밀의 집적체로서, 통치의 비닉된 아카이브로서, 코먼웰스의 안전을 위한 필수불가결한 원천으로서 가동된다.<sup>8</sup> 주권의 메모리에 액세스(access, 데이터를 기입·검색·실행)하는 숨은 카운슬러들의 간접적 계발트는 그 메모리 장치의 형질을, 그러니까 그 기억 정보의 입력과 출력(임의적인 망각과 상기)의 알고리즘을 사사화된·탈정치화된 이윤투쟁의 특정 경향을 띠도록 구축하고, 그런 경로의존의 상태를 강화하기 위한 수단들의 연관망을 직조하는, 그렇게 주권에 앞서 있는, 영혼으로서의 주권에 간섭하는, 선(先, Vor)-주권적인 섭정력이다. 그런 간접권력적 연관의 벡터는 저 권력과 무력함 간의 변증법, 결정·의지·자기관찰과 미결정·비애·자기소외 간의 변증법에 따라 주권의 포어라움을 독점하기 위한 물밑 투쟁속으로, 곧 주권적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통로의 개설권 독점을 위한 은밀한 투쟁 상태로 들어간다.

결정하는 주권에, 그러니까 리바이어던의 영혼에, 그 영혼의 메모리-프로세스에 액세스할 수 있는 권한을 둘러싼 간접권력들의 투쟁과 암약. 그것은 슈미트가 말하는 ‘안개’ 속에서의 일이며 안개를 피우지 않으면 행해질 수 없는 일이다. “그 안개 속에서 권력자는 자신을 간접적으로 지배하는 beherrschen [주도·주재하는] 자들에게만 다다르게 될 뿐인바, 그때 권력자는 자신이 권력을 행하는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겐 더 이상 다다르지 못하게 되며 그들 역시도 권력자에게 가까이 다다를 수 없게 됩니다. [...] 모든 직접적 권력이 증강될 때마다 간접적 영향력의 입김이 불어넣어지는 영역 또한 점점 더 농후해지는 것입니다.”<sup>9</sup> 결정의 심급에 있어 이제 결정적인 물음은

8 예컨대 ‘정부기록보존소’ 혹은 ‘국가기록원’의 메모리, 그 열람과 폐기를 둘러싼, 주권적 결정의 책임 및 결산을 둘러싼, 그런 결정에 관한 편의적·선택적 아카이빙과 자의적·외도적 기억상실을 둘러싼 여기 ‘행정안전부’와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간의 투쟁은 간접권력적 통치비밀의 안팎을 표시하는 한 가지 범례가 될 것이다.

9 Carl Schmitt (1994), p. 20.

다음과 같이 된다. “누가 매개 없이[unmittelbaren[직접] 액세스할 수 있는가 [우회 없이 곧바로 접근할 수 있는 이는 누구인가?”<sup>10</sup> 이는 슈미트가 실러의 『돈 카를로스』 속 절대군주 필립 2세와 포어라움이 맺는 관계를 집약한 것으로서, ‘누가 해석하는가’ ‘누가 결정하는가’ ‘누가 이득을 보는가’라는 홉스+슈미트적 질문의 향배를 함께 구성하는바, 그 물음들의 연관은 간접권력의 간섭상태·섭정상태를 극복하려는 힘의 형태를 묘사한다.<sup>11</sup> 다시 말해 그런 물음들의 테제는, 배일 뒤에서 불어넣어지는 입김Dunst의 권력 혹은 형체 없는 간접성의 환영Dunst(증기·안개·연막)을 저 권력과 무력함의 변증법적 운동과정 속의 한 단계로 설정하고 지양해 가는 힘을, 줄여 말해 “위대한 직접주의”<sup>12</sup>의 폭(권/위)력을 표시한다. 이런 사정과 관련하여 도약대로 삼아 볼 수 있는 것이 있다. 슈미트가 자신의 라디오 대담 속에 짧은 간주곡/막간곡으로 삽입해 둔 실러의 『돈 카를로스』가 그것이다.

5막 극시(劇詩, dramatische Gedicht) 『돈 카를로스』에 나오는 알바 공작 및 도밍고 신부는 권력 앞의 포어라움과 통로를 점유한 간접권력의 형상이다. 통일 스페인의 절대군주 펠리페 2세(재위 기간: 1556~1598) 아래 있는 교회권력의 일부로서 도밍고는 군주의 아들 카를로스과 함께 1막 1장의 첫 장면부터 등장해 첫 대사를 친다. 신·신성·교권의 연관으로부터 주권적 결정의 포어라움을 관리하는 이가 고해신부 도밍고였던바, 그가 보여 주는 간접권

10 Carl Schmitt (1994), p. 22.

11 간접권력에 대한 한 가지 정의는 다음과 같다: “홉스는 용감한 지성의 울퉁움으로, 보호할 수 없으면서도 복종을 청구하고 정치에 부수되는 위난을 떠안지 않은 채로 명령하고자 하며 책임을 다른 심급들에 떠넘기고서는 그 심급들을 매개로 권력을 집행하고자 하는 **간접권력**(*potestas indirecta*)에 맞서, 그런 간접권력의 구분방식과 거짓개념에 맞서 보호와 복종, 명령과 그것에 따른 위난의 인수, 권력과 그것에 따른 책임임이라는 오래되고도 영원한 연관관계를 두루 모아 한꺼번에 제시하였다.”[Carl Schmitt (1938), *Der Leviathan in der Staatslehre des Thomas Hobbes: Sinn und Fehlschlag eines politischen Symbols*, Hamburg: Hanseatische Verlagsanstalt, p. 12]

12 Carl Schmitt (1965), “Die vollendete Reformation: Bemerkungen und Hinweise zu neuen Leviathan-Interpretationen,” *Der Staat*, Vol. 4, No. 1, Duncker & Humblot, p. 64.

력의 속성/신성이 다음과 같은 대사들 속에서 표시되고 있다.

도밍고: 가슴에 품고 계신 비밀을 알아내려는 일은 이제 삼가겠습니다. 하지만 이것만은 분명히 알아주시기를요. 교회는 불안해하는 양심의 피난처입니다. 그 문을 열 수 있는 열쇠는 국왕께서도 갖고 계시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떤 죄일지라도 그것에 대한 참회의 비밀은 지켜집니다.

카를로스: 아니요, 당신처럼 비밀을 지켜야 하는 사람을 시험해 볼 생각은 추호도 없소.

도밍고: 왕자님, 이렇게도 저를 불신하시다니요. 지금 왕자님께선 충실한 신하를 오해하고 계십니다(“동지를 간신배와 혼동하시면 안 됩니다”).<sup>13</sup>

아들이 무서워진 부왕의 명령에 따라 왕자를 살피러 왔던 도밍고는 카를로스의 내면·심중에 감춰진 비밀이 왕과 왕국에 대한 반역으로 이어질 죄의 싹인지 아닌지를 은근한 낫빛으로 탐문한다. 도밍고는 부왕의 애정에 대해 왕자가 가졌을 양심의 가책을 건드리려고 하면서 그 왕조차도 갖지 못한 교권적 구원의 열쇠를 강조하고, 결코 누설되지 않을 비밀로 봉인될 죄의 고해를, 죄로부터의 해방이라는 고해의 성사(聖事)를 은밀히 권유한다. 그런 죄의 고해가 모조된 해방인 까닭은 그 고해성사가 교권 아래로의 자발적 복종으로 인도되는 것인 동시에 도밍고에게 탐문을 명했던 왕권 아래로의 복종으로 인도되는 것이기도 하기 때문이다.<sup>14</sup>

권력의 포어라움을 차지한 간접권력의 영적인 버전을 가리키고 있는 것이 도밍고라면, 간접권력의 현세적 버전을 가리키는 것은 알바 공작이다.

13 프리드리히 폰 실러(2008), 장상용 역, 『돈 카를로스』, 문학과지성사, p. 14. 이하 필요할 때는 원어를 노출시킴.

14 이 곁에 놓일 수 있는 문장들은 흠스를 읽고 있는 바우만의 것이다. “비유적으로 말하면, 오늘날 우리는 비밀과 친교의 성소인 고해성사실마다 공공 광장의 확성기들과 연결된 마이크가 설치되어 있는 고해(告解) 사회에 살고 있는 것과 다름 없습니다.”(지그문트 바우만(2014), 안규남 역, 『위기의 국가』, 동녘, p. 104)

그가 왕자에게 말한다. “알바: 왕관에서 번쩍이는 것은 진주이지만, 그것을 손에 넣기 위해 흘린 피는 번쩍이지 않는 법입니다. 여기 이것은 외국의 백성들에게 스페인의 율법을 알게 해준 바로 그 칼입니다. 그리스도의 것발 앞에서 번득이며, 이 왕국에 신앙의 씨앗을 뿌릴 피에 물든 고랑을 일궈온 칼이지요. 천국에서는 신이 판결하시지만, 지상에서는 이 알바가 판결합니다.”<sup>15</sup> 알바의 끝말을 달리 반복하자면 다음과 같다: “신은 천상(Himmel)에서 바로잡지만(richten, 재판/처벌하지만) 나는 이 세상(Erden, 땅 위)에서 그렇게 합니다.”<sup>16</sup> 천상의 나라 혹은 신이 왕인 나라에서 판정하고 별하는 신과 같이, 땅 위에서의 판결자를 자임하는 알바 공작. 그가 그럴 수 있는 것은 신에 버금가는 왕의 전쟁권·생사여탈권을 넘겨받았던 “거버너”(Gouverneur, 총독·지방장관·지사)<sup>17</sup>로서 전권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이다. 거버너·총독 알바는 권력정점의 포어라움과 통로를 장악한 간접권력의 현세적-집행적 양태를 표시하는바, 그 힘은 그리스도의 이름과 인민의 구원을 표방함으로써 땅위에서의 칼과 피의 필요성을 정당화한다. 그 칼, 피, 말하자면 알바적 철혈의 게발트. 그것이 천상의 나라와 신의 판결을 모방한 것일 때, 그리고 그것이 죄사함과 구원의 문을 여는 열쇠로서의 도밍고적 교권과 더불어 포어라움을 주관하고 있는 것일 때, 바로 그때 행해지게 되는 주권적 결정이란 어떤 형질을 띠는가. 알바 공작과 왕의 대화가 한 가지 답이 되어 준다.

왕: 대신들은 들어라! [“인민들을 지키는 것은 나의 칼이지만”] 나의 눈꺼풀을 졸음이 짓누르고 있는데도 내가 매일 저녁 내 인민들의 심장이 잘 뛰고

15 프리드리히 폰 실러(2008), p. 70.

16 Friedrich Schiller (1787), *Dom Karlos. Infant von Spanien*, Leipzig: G. J. Göschen[뉴욕 공공도서관 스캔본], p. 119. 이하 다음 전집판과 비교하여 옮김. F. Schiller (1962), *Friedrich Schiller Sämtliche Werke*, Bd. 2, München: Carl Hanser Verlag.

17 Friedrich Schiller (1787), p. 72.

있는지 살펴봐야한단 말이나?

알바: 갑옷 속의 제 심장이 고동치고 있는 한 폐하께서는 언제든지 편히 주무실 수 있을 것입니다! 천국의 문을 천사 케루빔이 지키는 것처럼 옥좌는 이 알바가 지켜드릴 것입니다.

왕: 왕좌는 알바가 보살핀다. 그 일에 대해선 더 이상 거론하지 말라! 이제 즉시 마드리드로 돌아간다. 국왕의 임무를 다하기 위함이다. 이단의 전염병이 인민들 사이에 돌고 있고 네덜란드에는 폭동이 창궐하고 있다. 방황하는 자들을 회개시키려면 한시의 여유도 없다. 나는 그리스도교의 국왕들이 했던 엄숙한 맹세를 내일 실천할 것이다. 내일의 처형[식]은 과거에 유래가 없던 사건이 될 것이다.<sup>18</sup>

전문적·관료적·중앙집중적 문서행정의 결재 시스템으로 통치했던 실존 인물 펠리페 2세처럼, 극 중의 왕 필립 역시도 격무에 시달리는 와중에 인민의 구제와 자신의 안위 사이에서 반문하고 있다. 인민의 심장과 그 박동·활동·활력을 살피고 보호하는 칼, 살투스 포폴리 수프레마 렉스의 실러적 판본. 이는 주권자의 임무를 집약하는 것으로서, 복종과 보호의 교환질서를 보위하기 위한 아나키의 처리·폴리차이[경찰/내치]와 직결되어 있다. 신·그리스도를 향해, 그 아래에서 맹세했던 왕권-교권의 상보적 합성체를 해체해 버릴지도 모를 내전=이단의 전염상태, “페스트/이교”(Die Pest/Der Ketzerei)<sup>19</sup>로 창궐하는 내전상태. 그 구체적 사례로 언급되고 있는 것이 네덜란드 독립전쟁인바, 이를 진압하기 위한 왕의 사형명령서와 그에 따라 집행·연출·상연될 이단 화형의 스펙터클은 『돈 카를로스』 5막 최후의 인물인 90세 종교재판장을 통해 왕권과 교권 간의 관계재설정이라는 맥락에서 증강되어 다시 언급된다. 그런 아나키·역병의 창궐상태에 대한 방역적·방역전쟁적

18 프리드리히 폰 실러(2008), p. 46.

19 Friedrich Schiller (1787), p. 70.

질서화의 벡터가 땅 위의 천국을 지키는 천사 케루빔-알바에 의해, 그리고 내면의 죄스런 비밀을 통치적 얹의 형태로 관리하는 고해신부 도밍고에 의해, 그러니까 간접권력적 폭(권/위)력의 연관에 의해 발현되는 것이다. 포어라움에 둘러싸이고 통로에 의해 협착되는 권력정점, 이는 부왕의 판단에 대해 “늙은이의 잿빛 분별력”<sup>20</sup>이라고 쏘아붙인 아들 카를로스의 말로 달리 표시될 수 있으며 카를로스의 죽마고우 포사 후작의 대사를 통해 세세히 증폭된다: “왕께서 돌아가시면, 왕자님께서 그리스도교 국가 최대의 왕국을 승계하시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왕자님과 사람들 사이엔 커다란 간격이 벌어질 것입니다. 어제까지는 인간이었던 분이 오늘은 신이 되실 것이고, 인간의 약점은 사라지고, 양심의 소리는 침묵하게 될 것입니다. 어제까지는 위대하게 들렸던 인류라는 낱말도 매수되어 우상 앞에 앉드리게 될 것입니다. 고뇌와 함께 연민의 마음도 사라질 것이고 덕성은 쾌락에 취해 버릴 것입니다. 당신을 우매하게 만들려고 페루에서는 황금을 보내고, 그 악덕을 배양하기 위해 신하들은 악마를 키울 것입니다. 노예들이 주위에 빈틈없이 쌓아 올린 천국에서 왕자님은 만취상태로 잠들 것입니다. 그리고 악몽이 계속되는 한 왕자님은 신으로 추앙 받으실 것입니다.”<sup>21</sup>

도밍고+알바라는 성+속의 간접권력에 의해, 간접적 계발트에 침습과 삼투에 의해 무력화된 주권자, 잠들어 버린 주권의 그 침묵·매수·우매·악덕·만취상태에 대한 포사 후작의 진단은 주권자에 대한 직접적 간언을 통해 다시 환기된다. “후작: 폐하께서 제 손을 통해 펼치려고 하시는 것이 과연 인류의 행복일까요? 그것은 허용되는 범위 내의 진리만을 형틀에 넣어서 찍어내고 형틀에 맞지 않는 것은 모조리 배척하려는 것입니다. / 왕: (약간 성급하게) 그대는 프로테스탄트로구나. / 후작: (잠시 생각하고 나서)

20 프리드리히 폰 실러(2008), p. 229.

21 프리드리히 폰 실러(2008), p. 49.

폐하의 신앙이 저의 신앙입니다. 저는 다만 폐하의 신비로운 베일을 벗겨 보여드렸을(weggezogen) 뿐입니다. 제가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게 된 것은 제게 더 이상 신성하게 보이지 않게 되었기 때문입니다.”<sup>22</sup> 제4막 10장, 곧 포사 후작과 왕의 독대(獨對) 장면은 ‘누가 매개 없이 직접 접근할 수 있는가’라는 물음에 대한 실리적 해답이다. “폐하께서는 자신의 창조 행위에 낯선 이가 다른 창조자로서 끼어드는 것을 참을 수 있으신지요?”라고 묻는 포사에게 간접권력적 간섭을 정지시키는 일이란, 왕과의 직접적 독대를 통해 포사 자신이 해야만 할 다음과 같은 일의 당위성과 맞물려 있으며 그런 당위성의 선결조건이라고 할 수 있다. “비록 깃털만 한 한 조각의 진리라 할지라도 마음먹고 전제군주의 영혼 속에 던져 넣을 수만 있다면, 신의 손을 통해 얼마나 풍요로운 열매가 열리게 될지는 알 수 없는 것이지.”<sup>23</sup> 좀 더 덧붙여 다시 한 번 옮기기로 한다:

누가 창설자의 손Bildners Hand 아래에서 삶·생명을 받아들일 것인가[말  
아 돌볼 것인가]? / 섭리Vorsehung[신의 뜻·의지]는 우연한 기회를 주는바—  
인간은 목적을 위하여 그 기회에 형태를 부여해야 한다. [...] / 내가 해야  
할 일이 자그만 불티같은 진리를 / 전제군주의 영혼에 담대하게 투척하는  
것에 머물지언정—그것은 신적인 사려의 손Vorsicht Hand에서 참으로 풍성  
한 결과를 낳지 않겠는가!<sup>24</sup>

이렇게 독백했던 포사가 왕과의 독대자로서, 왕에의 직보자로서 직언한다. “강력하시기도 관대하신 폐하께서 인간의 행복이 폐하의 풍요의 뿔에서 쏟아져 나오게 해 주십시오. 폐하의 영토에서 인간의 정신이 성숙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우리들에게서 가져가신 것을 되돌려 주셔야 됩

22 프리드리히 폰 실러(2008), p. 143.

23 프리드리히 폰 실러(2008), p. 139.

24 Friedrich Schiller (1787), p. 258.

니다. 폐하께서는 수백만 군주 위에 군림하는 군주가 되셔야 합니다. 지금 이 중대한 순간을 지켜보고 있는 수천의 사람들의 응원이 저의 입을 통해서 폐하의 눈에서 솟구치는 빛을 활활 타오르게 할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 우리들에게 영원한 것과 참다운 것의 모범을 보여주십시오. 일찍이 어떠한 인간도 폐하만큼 신에 버금가는 힘을 쓸 수 있는 사람은 없었습니다.”<sup>25</sup> 신 아래에서 신에 버금가는 주권자, 신적인 섭정자, 그것의 다른 이름은 군주들의 군주, 집행하는 부왕(副王)들 위에 군림하는 왕, 왕중왕이다. 그런 신적인 통치의 세속권력적 관계 속에서, 신에 버금가는 왕중왕의 섭정관계 속에서 포사가 보고 있는 것은 주권자를 거짓-유령적 신으로 환치시키는 간접권력적 신비의 베일이 벗겨진 상태이며 포어라움과 통로 독점체에 의한 주권의 침습이 정지되고 있는 상태다. 달리 말해 “누가 주권자와 더불어 풍요의 선물을 연주할 수 있는가”<sup>26</sup>라는 물음의 테제를 본다. 그런 포사 곁에서 왕은 저 권력과 무력함의 변증법적 지양점을 찾으며, 그렇게 무력한 잠에서 얼마간 깨어난 채로 다음과 같이 궁정에 명령했을 때 도밍고와 알바의 간접권력은 정지된다.

왕: 저 기사는 앞으로 아무 절차 없이 통과시켜라.

도밍고: 우리들의 시대는 지나가버렸군요.

알바: 내가 지나가면 문이라는 문은 모조리 열렸었는데, 그 당당하던 세도는 간데없고 세상이 완전히 바뀌고 말았습니다. 마치 딴 세상이 된 것처럼 말입니다.<sup>27</sup>

25 프리드리히 폰 실러(2008), p. 149.

26 프리드리히 폰 실러(2008), p. 145.

27 프리드리히 폰 실러(2008), p. 155; p. 211. 슈미트는 궁정에 대한 왕의 명령, “저 몰타 기사는 앞으로 아무 사전 보고 없이 곧바로 나를 알현할 수 있게 하라”는 명령은 인용부호를 떼고서(그리고 원문에는 없는 느낌표를 붙여서) 인용했고, “우리들의 시대는 끝났습니다”라는 도밍고의 대사에는 인용부호를 붙여서 인용한 다음 그 두 인용 사이에 이렇게 쓴다: “왕의 그 명령은 단지 관객들만이 아니라 극 자체의 모든 행위 인물들에게도 거대

주권적 결정의 문을 마치 천국의 문인 것처럼 열고 닫았던 영적인+현세적인 간접권력의 효력정지, 그 포어라운드와 통로의 폐쇄는 무얼 뜻하는가. 죄·죄책을 간접권력의 질료로 삼아 행위자의 배후에서 “실 끝을 당기고 있던”<sup>28</sup> 고해신부의 섭정적 실권이 끝나고 있음을, 그런 배후의 위치에서 위험과 책임을 면피하면서도 지배권을 가지는 청죄(聽罪)-사목적 교권의 권력투쟁과 그 방법이 무위로 돌러지고 있음을, 총독 알바가 보위하는 왕좌의 베일이 벗겨지고 있음을, 그 베일 뒤에서 통치의 이윤을 축적하는 비밀화된 권력관계가 개시되고 있음을, 알바-케루빔 천사가 땅위의 천국에서 대행하던 판결권이 무효화되고 있음을 뜻한다. 유혈적 간접권력의 시대를 닫고 다른 세상을 도래시키는 힘, 다시 말해 간접권력적 포어라운드와 통로의 배치를 깨고 끊는, 권력정점에 대한 직접적·비매개적 액세스의 계발트. 그것이 포사가 말하는 도래할 정치의 동력이자 산물이다. 왕의 직권(直權)으로 간접권력이 정지되게 만들었던 포사는 왕의 심복(心腹)이 되길 거부했으며 일국 국민의 후생 증진에 봉사하는 일 너머를 향하고 있었다. 달리 말해 애초부터 그는 저 ‘신의 손/섭리’를 따라 도래할 세계 혹은 미래의 세계시민으로 구성될 정치체의 구축을 향해 있었다(그것을 예시하는 표현들은 다음과 같다: “도래할 시대의 세계시민”, “다가올 인류의 세계” “새로운 세계의 건설”, “새로운 국가”, “곧 도래할 더 나은 세상”, “미래의 나라” “앞으로 통치할 나라”<sup>29</sup>).

---

한 드라마적 효과를 미친다.”[Carl Schmitt 1994, p. 22. 다시 옮긴 왕과 도밍고의 대사는 각각 Friedrich Schiller (1787), p. 292, 409]

28 프리드리히 폰 실러(2008), p. 181.

29 각각 프리드리히 폰 실러(2008), p. 144, 243, 203, 237, 41.

### 3. 신 앞의 포어라움: 메시아적인 것과 카테콘적인 것

포사는 새로운 정치체의 분만에 뒤따르는 위험과 책임을 회피하지 않으면서 구체제에 대한 반란을 도모하는바, “제후의 심부름꾼”(Fürstendiener) 이길 거부하고 “세계의 시민”이길 택한 그는 도래할 구원의 정치체를 위하여 모종의 ‘사라지는 매개자’로서 스스로를 자리매김한다.<sup>30</sup> 친구이자 왕자인 카를로스에게 새로운 건국의 뒤이어질 후속 행위자 역할을 맡긴 포사가 그 뜻에 동조하는 왕비에게 다음과 같이 말할 때, 그것은 메시아적인 것과 정치적인 것의 관계를 살펴보도록 이끈다.

[i] 저는 카를로스님의 가슴속에 수백만을 위한 낙원을 건설했습니다. 하지만 신의 섭리는 미처 그 건설이 끝나기 전에 저를 이 세상에서 데려가려 하십니다. 제 자리는 왕자의 연인이셨던 왕비께서 대신하실 것입니다. 그는 착수할 것이며, [ii] 몇 세기 후에 하늘은 틀림없이 왕자님 못지 않은 왕자를 똑같이 높은 지위에 앉힐 것입니다. 그 새로이 총애하는 아들에게 동일한 감격을 불어넣으실 것입니다. [...] 이 척박한 토지에서 저의 장미는 꽃을 피우지 않습니다. 친구의 손에 저는 스페인을 맡기려 합니다. [iii] 그날까지 스페인은 왕 아래에서 피를 흘릴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sup>31</sup>

i) 도래할 낙원에서 지켜질 인민의 구체·살루스, 그 복락원에서의 일이란, 신의 손 혹은 신적인 섭리와 주권적 결정 간의 관계가 간접권력의 정치

30 이 점이 슈미트의 간주곡에 등장하는 다른 인물 비스마르크와 포사 간의 차이다. 비스마르크의 묘비명에는 다음과 같이 새겨져 있다: “황제 빌헬름 1세에게 충절을 바쳤던 독일인 심부름꾼(Diener).” 실러의 낱말들은 Friedrich Schiller (1787), p. 263.

31 프리드리히 폰 실러(2008), p. 204.

상태라는 맥락에서 직접적인 것으로 다시 설정되는 상태이며, 그 속에서 정치체의 질서·보위와 인민의 자유·구제가 모순 없이 더불어 관철되는 상태이다. 신의 손·섭리에 따라 도래할 코먼웰스, 말하자면 모종의 신국 혹은 메시아 왕국의 문 앞으로 인민을 매개하는 포사는 다름 아닌 그 신의 섭리에 따라 사라져야만 한다. 포사의 그런 매개력은 그렇게 사라짐을 통해서만, 아직 완전히 도래하지 않은(not yet) 힘으로서, 그렇기에 거듭 기다려지고 달리 상기되는, 그러므로 벌써 이미(already) 도착해 있는 힘으로서 발현할 수 있게 된다(그렇게 사라지지 않으려는 것은 도밍고적 교회권력, 그러니까 실력으로 언젠든 누구든 끌어 당겨 조종할 수 있는 간접권력의 의지이다). ii) 포사는 신의 총애 속에서 다시 도래할 새로운 성자를, 신의 섭리로 베풀어지는 은총의 폭(권/위)력을, 그렇게 ‘불어넣어지는’ 신의 섭정적 힘을 예비하는바(그 힘의 구체적 사례를 실러에게서 찾자면, 그것은 『오를레앙의 처녀』[1801년 초연] 속 ‘잔다르크’일 것이다), 그런 힘의 이념적 범례는 카를로스가 알바에게 했던 다음과 같은 대사로 표시된다. 말하자면 실러적 최후심판론. “당신 같은 사람은 이 세상의 종말에 태어나는 쪽이 좋을 것 같네요. 악덕이 산더미처럼 쌓여서 관대한 신도 더 이상은 참지 못하는 때, 최악이 열매를 주렁주렁 매달고 그것을 거둬들일 유별난 수확자가 필요하게 됐을 바로 그때야말로 당신이 나설 차례일 텐데 말이지요.”<sup>32</sup> 이 비꿈의 말은 자신이 행하는 현세적 판결을 마치 신의 심판인 것처럼 규정했던 알바의 간접권력을 다름 아닌 신의 그 최종심 앞에 세운다. 왕의 총독으로서 유혈적 법의 문을 천국의 문으로 호도했던, 그런 법의 문고리가 달린 간접권력적 포어라운드 속에서 칼과 피의 판결을 일삼았던 알바는 그 악한 결과들에 대해 일일이-세세히 결산될 것이었다. 누가 결산하는가. “세상나날들의 끝에 Am Ende aller Tage” 신의 섭정력으로 파송되는 ‘특례적인 수확자’, “유례없이 베어들이는

32 프리드리히 폰 실러(2008), p. 70.

추수자Schnitter<sup>33</sup>가 그 일을 행한다.

신의 손, 신의 섭리에 따른 실리적 최후심판의 그같은 비유와 상황은 간접권력에 맞세워지는 메시아적 종말의 타작론·대차대조론·결산론으로 자리매김될 수 있다. iii) 그런 신적인 섭정력의 발현을 저지하고 있는 힘, 메시아적인 타작의 도래를 가로막고 있는 힘이 가동되는바, 그 억지력이 동력으로 삼는 것이 다름 아닌 '피'다. 대단원 5막에서 유혈의 협업자로 등장하는 '대심문관'(Großinquisitor, 국역본에서는 '종교재판장')과 왕은 피를 필요로 하는, 신의 이름 아래 이단과 반역의 전염적 피를 식별하고 방역함으로써만 집권상태를 보위할 수 있는 또 하나의 상보적 성+속의 간접권력으로 등장한다. 대심문관+왕은 신·신국의 결정 앞에 놓인 포어라움을 독점함으로써만 신의 추수·결산적 최종심을 억제할 수 있는 연합체이기 때문이다. 신 앞의 포어라움, 그 밀실 안에서 몸을 쉬는 간접권력으로서의 대심문관+왕에게 신의 진정한 파송자·섭정자는 아나키적인 역병균이며 억제되어야 할 적이다. 대심문관+왕, 다시 말해 방역자·억지자. 그 유혈의 협업상태, 피에 주린 이위일체적 카테콘의 간접적인 폭(권/위)력은 신의 파송자·중보자로서 포사가 행하는 매개력의 속성들과 견주어질 때 세세히 표시될 수 있다. 5막에서 왕의 총에 피 흘리며 죽게 될 포사가 도래할 시대에 관하여 왕에게 고지한다. “시간이 지나면 좀 더 온건한 시대가 폐하의 치세를 대신할 것입니다. 그 시대는 좀 더 온화한 지혜를 가져다줄 것입니다. 인민의 행복은 군주의 권력과 서로 협력하며, 현명한 국가는 인민을 소중하게 다룰 줄 알고, 법도도 역시 인간미 있는 것으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왕은 그런 구원의 시대가 언제 도래할 것인지를 반문하고는 자기 치하에서 이미 행복하고 자유로운 스페인처럼 네덜란드에도 그런 평화를 베풀고자 한다고 말한다. 포사가 답한다. “그것은 무덤 속의 평온일 뿐입니다. 폐하께선 때맞춰 찾아온 그리스도교 혁신의 기운과 세계의 모습을 다

33 Friedrich Schiller (1787), p. 119.

시 짧게 만들 봄을 영원히 못 오게 막을 작정이십니까? 온 유럽에서 노도 처럼 밀려들어 오는 숙명의 수레를 홀로 막아서려 하십니까?”<sup>34</sup> 혁신된 신교(新敎)와 세계의 회춘(回春)을, “억지할 수 없는”(unaufhaltsam) 도래할 세계를, 다름 아닌 무법상태로, 왕국의 분열과 사멸을 촉진시킬 내전의 불길로 판정하는 자, 그렇게 저지하고 “막아 세우는”(aufzuhalten)<sup>35</sup> 억지자=카테콘(καθηκων=Aufhalter)으로서의 왕. 포사는 그런 아나키에 대한 경찰/내치의 가동상태를 거짓 평온이라고 규정한다. 포사에게 카테콘으로서의 왕은 픽션적이고 유형적인 평화상태를 보위하는 힘의 발현형태인바, 그 속에서 인민의 행복·구제·살루스는 주권의 상생적 목적이 아니라 언제나 수단화될 수 있는 도구적 질료로 설정된다. 인민은 그런 수단적 상태를 깨고 나오면서 “신성한 권리를 요구하고 왕을 폭군 내로와 같은 반열에 놓을 것”이었다.

포사가 말하는 도래할 정치체란 카테콘에 의해 자유재량적으로 열고 닫히는 법의 문 너머로서 발현하는 메시아적인 것이며, 그런 피의 엔클로저 너머에서 발원하는 참된 평화상태이다. 그것은 모종의 이소노미아, 위계적 지배 없는 자유-평등의 형질을 띠는데, 왜냐하면 “온건한 모습을 띤 자유의 고귀한 덕성”이, 그리고 그런 자유에 뿌리박은 인민의 구제상태가 실러적 평등의 방법과, 그러니까 “평등에 보탬이 되는 권리 말고는 그 어떤 의무도 인민을 속박하지 않게 하는 주권의 (직권-)조치”<sup>36</sup>와 상보적인 협력관계를 이루는 것으로 설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러하되 도래할 정치체의 이소노미아적 벡터는 당대·당장의 일이 아니다. 그것은 어디까지나 ‘몇 세기 이후’의 일이며, 미래 어느 때 꽃 피울 수 있는 조건의 무르익음 속에 있는, 그렇기에 발생적이고 맹아적인 일, 발아할 일이다. 포사는 자신의 당대적 조건이 아직 성숙하지 않았다고, 메시아적 왕국은 자기 당

34 프리드리히 폰 실러(2008), p. 147.

35 Friedrich Schiller (1787), p. 278.

36 프리드리히 폰 실러(2008), p. 151.

대에 속하는 게 아니라고, 그렇기에 카를로스에게 뒷일을 맡기면서 자신은 미래의 '세계시민'으로 — 곧 '도래할 시대의 시민'으로 — 살아가야만 한다고 말한다. 포사가 행하는 매개력의 메시아성을 다시금 표시하기 위한 질문은 다음과 같이 된다. 포사는 누구처럼 말하는가, 그 말은 어떤 힘의 발현인가. “나의 왕국은 이 세상의 것이 아니다”(「요한복음」 18: 36)라고 말하는 그리스도 예수처럼 말하며, 그 말은 메시아적인 힘으로 발현될 것이었다. 신의 손에 의해 파송됐고, 그 손·섭리에 따라 구체제의 작동 정지를 위한 통로를 구축했으며, 신의 섭리적 정치체·섭정체를 사라지는 매개력으로 지속시켰던 포사는 숨은 신의 밀명을 행했던 '신의 스파이'(혹은, 신 앞의 단독자/독대자, 키에르케고르), 신의 유일한 내통자였으며, 그런 한에서 진정한 정치가였던바, 신의 섭정자, 메시아적 포사의 폭(권/위)력이 정치적인 것에서의 직접성을 회복시키고 있었기 때문이다. 신의 손에 의한 파송, 보이지 않는 그 손·섭리에 직속된 스파이의 매개 업무, 신 앞의 포어라움을 무력화시키는 신에의 직보. 성+속의 카테콘으로서 협업하는 대심문관과 왕이 포사의 매개력을 저지하지 않으면 안 됐던 이유가 거기 있다. 포사의 죽음 이후, 그 매개력을 억지한 직후, 성+속의 카테콘은 말한다.

왕: “내가 없으면 어찌 되는지 알게 해주겠다. 오늘 하룻밤 동안은 아직 이 세상은 내 것이야. 이 밤을 이용해 내가 불태운 이곳에는 앞으로 십 수 세대 동안 이단의 씨앗이라곤 단 한 알도 열리지 않도록 해주겠다. 포사 그 녀석은 인류를 우상으로 삼고 나를 희생양으로 만들었다. 나는 내 희생에 대한 보상을 인류에게 요구하겠다. 먼저 포사 그 녀석이 가지고 놀던 인형부터 시작하자.”

종교재판장: “포사는 당신에게 살해된 겁니다! 우리 교권의 명예를 영광스럽게 하기 위해 흘렸어야 할 그의 피가 살인자의 손에 의해 뿌려지고 만 겁니다. 그자는 우리의 사람이었습니다. 왕께선 무슨 권리로 교단의 신성

한 제물에 손을 댔던 겁니까? 그자는 우리 손에 죽기 위해 살아있었던 겁니다. 신께서 직접 그자의 정신을 욕되게 하고 정도를 벗어난 이성의 말로를 현세에 본보기로 삼으시고자 직접 내려보냈던 것이 포사입니다. 저의 계획은 완벽했었는데, 지금 몇 년간의 제 노력은 물거품이 되고 말았습니다.”<sup>37</sup>

90세 추기경이자 시력을 잃은 대심문관. 그는 그리스도 혹은 메시아적인 것의 도래를 교권의 영광과 구제사업을 위해 억지하고 불태우고자 했다(이는 동시대 스페인 세비야를 배경으로 한 도스토옙스키의 대심문관과 겹친다<sup>38</sup>). 대심문관에게 포사는 다름 아닌 “신이 선물한(schenken … Gott) 것”,<sup>39</sup> 이단 화형식이라는 교권의 성사·스펙터클 속에서 불 타야 할 제물로서 교권의 무대 위로 신이 하사했던 것, 그렇게 신에 의해 면피되어(schenken) 내려졌던 것이었으며, 왕에게 포사는 마치 실 끝을 당겨 왕자 카를로스를 가지고 놀았던, 인형극 무대 뒤의 조종자와도 같았다. 거슬러 역으로 말하자면, 대심문관과 왕이라는 성+속의 이위일체적 카테콘에게 포사는 신의 유일한 매개자·중보자로서 위협시되어야 할 적, 신적인 섭정력의 주재자로서 억지되어야 할 적이었다. 반복컨대, 포사의 그 매개력·섭정력이란 신의 결정 앞에 놓인 포어라움의 밀실상태를 해제하는 힘, 대심문관+왕이라는 간접적 개발트연관의 베일을 벗기는 힘이었기 때문이다. 그런 포어라움 안에서, 그런 베일로 몸을 가린 대심문관+왕은 신의 결정을 앞질러 자신들의 유혈적인 결정을 신의 결정의 오류 없고 순정하며 비가역적인 대행으로 자리 잡게 만든다. “왕: 과거는 지나갔고 평화가 우리 둘 사이에 공존하고 있으니, 이제 우리는 화해한 것이겠지요? / 종교재판장: 필립이 검손하

37 프리드리히 폰 실러(2008), p. 244, 249.

38 이 대심문관의 카테콘적인 힘에 관해서는 윤인로(2020), 「이반 카라마조프의 대심문관 또는 사목권력적 대표론」, 『순천향 인문과학논총』 39를 참조.

39 Friedrich Schiller (1787), p. 486.

게 고개를 숙이신다면(Demut beugt, 공경의 마음으로 몸을 구부린다면). / 왕: (뜸을 들이고) 실은, 왕자가 반란을 꾸미고 있소. ... 가책을 느끼지 않고 아들을 죽일 수 있을 새로운 신앙을 내게 심어줄(gründen, 뿌리박게 할) 수 있겠소? / 종교재판장: 영원한 정의를 위해서라면 신의 아들도 십자가에 매달렸습니다. / 왕: 판결은 그대에게 맡기겠소. 나는 그만 손을 떼도 되겠소? / 종교재판장: 맡겨두십시오. / 왕: (일어선다) 그럼 합의가 이뤄진 것이지요. 이리 오시오. 이 손에서 희생양을 인수해가시오. (종교재판장을 이끌고 나간다)<sup>40</sup>

1막의 도밍고+알바로부터 5막의 대심문관+왕까지, 플롯의 긴장도가 정점으로 향해 나아가는 과정은 다른 아닌 간접권력의 내역·접합·위계·진개·증강을 표시하는 것이기도 하다. 5막의 끝에서 이뤄지는 대심문관과 왕의 화해 및 합의란, 도래할 정치체의 행위자인 카를로스를 비롯해 정치적 반역도들을 신에 거역한 이단자로서 사형시키는 절차에서의 분업 및 협업을 가리킨다. 아들을 죽이는 아버지, 그 패륜의 죄를 죄인의 가책 없이 면죄하는 정의와 신앙이 대심문관에 의해 조달되어 왕에게 이식·인입된다. 대심문관은 아들에 대한 아버지의 죄를 면죄하고 정당화하는 동시에, 신교도 이단인 포사에 동조되어 그를 종교재판에 회부하지 않고 중용했던 왕의 죄 역시도 왕을 교권 아래로 숙이고 들어오게 함으로써 면책한다(왕은 교권에서 이탈해 독립적인 지배권을 갖고자 했었고, 그 와중에 “비상시 [...] 조치”<sup>41</sup>의 재량권을 부여할 정도로 포사를 신임하게 됐다). 도래할 정치체의 행위자들은 그렇게 왕의 면죄와 면책을 위한 희생양으로 불태워질 것이다. 신의 힘을 대행하는, 정확히 말하자면 신의 힘에 선행하는 대심문관의 결정력, 신 앞의 포어라움에 죄와 면죄의 재량적 선(先)결정자로서 앉아 있는 대심문관. 그런 그가 인간 이성의 자유에 의해 초래되는 아나키상

40 프리드리히 폰 실러(2008), p. 252; Friedrich Schiller (1787), p. 493.

41 프리드리히 폰 실러(2008), p. 182.

대의 범례로서 포사를 일벌백계하려는 자신의 계획, 그러니까 포사를 내려 보낸 신의 의지를 공들여 대행하고자 했던 그 계획이 물거품이 됐다고 말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왕이 교권에 머리를 숙이게 만든 권력투쟁의 성과를 숨기는 위장이며, 그런 한에서 왕권에 대한 권력투쟁의 지속이다. 대심문관의 이면적 입장에서 포사는 교권의 회복과 증강을 위해 신이 내려보낸 진정한-비밀스런 선물이며, 교권의 보위를 위한 왕권의 굴복이라는 프로세스가 신적인 섭리의 이름 아래 가동되게 하는 인계철선이자 방아쇠로 기능했다.

정확히 말하자면, 그런 포사를 통해 왕이 교권에 머리 숙이게 된 것은 확정적이거나 불변적인 게 아니다. 그것은 교권과의 연합지배를 왕이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선에서 이뤄지는 성+속 두 권력의 균형, 신 앞의 두 주인이 이루는 대립적 균형 속에서의 일이다. 대심문관+왕의 관계가 적실하게 드러나는 두 대목은 다음과 같다. i) “종교재판장: 이제 교훈을 얻었으면 다시 저희들에게로 돌아오시는 게 좋을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오늘 폐하 앞에 서지 않는다면, 내일 폐하께서 제 앞에[화형대 위에] 서게 될 것입니다. / 왕: 말이 지나치군. 삼가시오, 신부! 참을 수가 없군. 그런 식으로 말하는 것은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소.” ii) 구체제에 대한 반역을 위해 비밀리에 만나고 있던 카를로스왕 왕비를 불시에 덮친, 그렇게 카를로스를 체포한 왕의 명령적 말(그 말이 대단원의 마지막 말이다): “(종교재판장을 향해, 조용히 그리고 차디차게) 추기경, 나는 내 할 일을 하였소. 이제 당신이 해야 할 일을 하시오. (뒤로 물러난다)”<sup>42</sup> 왕의 일, 그것은 왕의 필수적이고 자각적인 임무로서 대심문관이 주장했고 그렇게 왕의 다짐을 받았던 일, 곧 “사형집행 명령서”의 발부이다. 그 역어의 원어는 번역이 불가능한(무릅쓴 번역만이 가능한) 합성어 “블루트젠텐츠”로, 피(Blut) 혹은 유혈(流血)을 결행하게 하는 신성한 판

42 프리드리히 폰 실러(2008), p. 251, 257.

정·선고문(Sentenz)으로 새길 수 있다.<sup>43</sup> 대심문관의 일이란 신의 뜻에 뿌리박힌 영원한 정의로, 혹은 영원한 정의라는 신의 이름으로 저 블루트젠텐츠 위에 날인하는 것이며, 그렇게 왕의 서명과 신의 날인이 이중으로 들어간, 피에 주린 이위일체적 폭력의 공문서를 통해 정치적=종교적 이단을 불태워 정죄하고 정화하는 것이다. 국권과 교권이 생사여탈이라는 최정점에서 발현되는 화형의 현장에는 없는 서명자들, 그렇게 날인했기 때문에 현장에서는 부재 중에 있는 성+속의 서명날인자들은 저 블루트젠텐츠 위에서 서로가 서로의 부재를 대리보충하는 방식으로 서로의 현전을 재현하는바, 신 앞의 포어라움에서 화해한 성+속의 두 간접권력이 피의 분업을 행하는 것은 그런 상호적 간여와 간섭의 공정 속에서이다. 그러하되 그 화해는 어디까지나 두 주인에 의해 이뤄진 것이므로, 그 속에는 왕국의 해체로 이어질 내전의 불씨가 여전히 살아 있다.

그렇게 대심문관과 왕, 그 두 주인의 대립적 균형상태란, 누구에게 복종할 것인가(어떤 결정자와 더불어 복종-보호의 교환관계를 맺을 것인가)라는 물음을 둘러싼 충돌 속에서 인민의 피를 초래할 것이었다. 그렇기에 인민의 구제와 최고의 법이 맺어야 할 관계형식이라는 관점에서(살루스 포폴리 수프레마 렉스의 발현형태라는 차원에서) 두 주인의 간접적 폭(권/위)력을 정지시켰던 것이 될 힘의 관계를 다시 살펴볼 필요가 있다. 즉, 도래할 정치체, 곧 메시아적 힘의 관여자로서 포사가 말하는 모종의 섭정관계, 다시 말해 신의 손·섭리를 통하여(per) 발현하는 주권관계. 이를 가리키기 위해 포사는 “수백만 왕들의 왕”<sup>44</sup> 곧 ‘왕중왕’이라는 용어를, 그러니까 결정적 주권관계가 표시된 오래된 명칭을 사용하는바, 그런 관계적 주권의 발현을 구성하고 지탱하는 선행 조건들을 배치해 보자면 다음과 같다. i) 왕중왕이란 “필멸할 자는 결코 점유할 수 없는 신적인 힘의 사용”이 가능한, 그렇게 ‘신에 버금가

43 프리드리히 폰 실러(2008), p. 71; Friedrich Schiller (1787), p. 121.

44 Friedrich Schiller (1787), p. 280.

는 힘'을 가질 것, ii) 그 힘의 사용은 인민의 구제가 관철되도록 왕중왕을 깨우고 인도하는 인민의 목소리에, “그렇게 위대한 때를 공유하는 수천 명 모두의 열변”<sup>45</sup>에, 혹은 정치신학적 관용구를 빌려 다시 말하자면 ‘복스 포 폴리 복스 데이’(Vox populi, vox Dei, 인민의 목소리가 신의 목소리다)에 뿌리박고 있을 것, 이를 위해 iii) 왕중왕은 인민=신의 목소리를 대언(代言)할 수 있는 인간이 자신에게 직보할 수 있도록 할 것, iv) 그렇게 왕중왕의 결정이 “인민의 신성한 권리”<sup>46</sup>와 상보적인 관계를 이름으로써만 설정되고 보위될 수 있게 할 것. 이 같은 상호조건적 항목들이, 신적인 섭리로 가동되는, 신 아래에서 신에 버금가는, 신과의 이위일체적 주권을 갖는, 신 앞의 포어라움을 무위로 돌리는 도래할 섭정체의 직접적인 힘관계를 구성한다. 왕을 통해 그같은 직접적 힘관계를 실험하고 또 구축하려던 이가 포사였던바, 그는 살루스 포폴리와 수프레마 렉스 간의 상보성이라는 최종심급에 근거함으로써 인민=신의 목소리를 집약적으로 듣고 대표하여 발화할 수 있게 됐으며, 그럼으로써 간접권력적 베일 뒤로 집권의 통로를 개설하는 게 아니라 사라지는 매개역으로서 잔존할 수 있었다.

포사는 끝내 왕에 의해 살해되지만, 생전에도 사후에도 왕은 포사와의 직접적 관계에 대해, 도래할 정치체로의 접속을 가능케 하는 포사라는 매개력의 발현에 관해 순간적·부분적이었을지언정 전향적이었고 긍정적이었다. 포사에게 왕은 말했다. “그대는, 그대만은, 내 앞에 남아서 언제까지고 인간으로 있어주게.” 왕 앞의 그 인간이란 무엇인가. 죽은 포사에 대한 왕의 말을 따르자면, 그 인간이란 “우리 시대에 나타났던 위대하고도 자유로운 인간, 단 하나뿐인 인간”<sup>47</sup>이었다. 그 “유일한 정신, 유일한(E i n) 자유인”<sup>48</sup>에게, 신적인 그 매개자·중보자에게 부분적으로 동조되었고 그 힘을

45 Friedrich Schiller (1787), p. 281.

46 프리드리히 폰 실러(2008), p. 148.

47 프리드리히 폰 실러(2008), p. 242.

48 Friedrich Schiller (1787), p. 472.

전면적으로 필요로 하게 되었던 왕을 질책하면서 왕의 오판을 바로잡은 이가 대심문관이었던바, 그는 왕과 선왕의 스승으로서, 2대에 걸친 왕국의 정초자로서 왕의 말을 꺾고자 했다. “왕: 나는 한 인간이 필요했던 것이오. 도밍고 따워로는……. / 종교재판장: 무엇을 위한 인간 말ियो? 인간이란 당신에겐 단지 머리 숫자일 뿐입니다. [...] 현세에서 당신과 대등한 인간을 인정하게 되어서는 곤란합니다. 대등한 인간을 대하면서 어떻게 당신의 권위를 세울 것인지 궁금하군요.”<sup>49</sup> 인정되어선 안 될 ‘왕과 대등한 인간’이란, 두 주인 간의 아나키적 내전을 억지하는, 유일한 권위의 붕괴를 예방조치하는 대심문관의 카테콘적 임무를 표시하지만, 반대로 포사/왕에게 그 인간은 간접적 폭(권/위)력을 무효화하는, 주권적 결정자에 직보·직속하는, 직접적으로 발현하는 계발트를 표시한다. 왕과 대등한 인간, 다시 도래할 유일자란, 대심문관에겐 있을 수 없으며 미연에 억지되어야 할 무법적 힘의 형태인바, 있을 수 있고 허용될 수 있는 인간이란 ‘단지 머리숫자’로서의 인간이다. 그 인간, 단순한(bloß, 별거벗은), 그저 목숨 부지에 급급한, 단지 숫자로 카운팅됨으로써만 재현될 뿐인 인간이란, 저 리바이어던의 몸을 이룬 인민[소인(小人)들]의 복종-보호상태로부터 오직 (전투)경찰적+(감염)의학적 내치를 통해서만 재현될 뿐인 상태의 삶, 언제든 ‘해체된 인민’의 상태로 전락될 수 있는 삶·생명을 뜻한다. 단지 머리숫자일 뿐인 인간이란 그런 경찰/내치적 재현의 질료이자 목표이며, 간접권력은 그런 유혈적 재현의 여부를 선결정한다.

49 프리드리히 폰 실러(2008), p. 251.

#### 4. 호모 호미니 호모: 결정하는 인간의 조건

대심문관이 말하는 왕과 대등한 인간 대(對) 단지 머리숱자일 뿐인 인간, 그 정치적 인간론 혹은 도래할 인간의 정치론은 실리를 읽고 있는 슈미트에게도 관건이었다. 그는 도래할 아나키를 미연에 억지하는 대심문관의 카테콘적인 정치를 옹호할 것이지만, 동시에, 그 대심문관의 정치적 억지력이 보편주의적 교권의 영광과 그것의 발양을 위해 현세적 주권자에 대한 권력투쟁을 비투쟁적인 수단으로 계속 행하는 또 하나의 아나키적 힘이라는 점을 비판할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이유는 홉스의 독자(讀者/獨子)로서 슈미트가 제시하는 ‘카테콘의 이념’을 따를 때인바, 전후[1946년 여름] 포로상태 속에서의 구원을 향해(감금상태로부터의 구원을 위해) 썼던 모종의 변론문에서 슈미트는 당대의 정치를 두고—그러니까 다른 수단을 통한 열전의 지속상태로서의 냉전 아래에서 각국 주권 앞에 포어라움을 구축했던 미국+소련이라는 간접권력적 공모체 혹은 국제정치적 섭정관계를 두고—다음과 같이 진단한다: “유럽은 **카테콘(Kat-echon)**의 이념을 갖지 못한 채 길을 잃었다.”<sup>50</sup> 실리적 대심문관과는 다른, 간접권력을 정지시키는, 진정한 카테콘의 이념. 그것은 참된 적대의 구성과 그 효력의 벡터에 관여하는 정치적인 것의 개념인바, 그 이념·개념의 인도 속에서, 말하자면 인간은 인간에 대해 늑대-양의 관계에 있지 않으며 신-신자의 관계에 있지도 않다. 진정한 카테콘의 이념을 따를 때 정치적인 것의 근원은 다음과 같은 테제로 규정된다: “인간은 인간에 대해 인간이다—**호모 호미니 호모(homo homini homo)**.”<sup>51</sup> 문제의 해결·해제가 아니라 문제설정의 시초로서, 비판적이되 긍정될 수 있는 것으로서 정식화된 호모 호미니 호모 속의 인간이란 다음과 같은 말 속의 인간이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인간으로 있다는 것은 결**

50 Carl Schmitt (1950), *Ex Captivitate Salus: Erfahrungen der Zeit 1945/47*, Köln: Greven Verlag, p. 31.

51 Carl Schmitt (1994), p. 31.

정(Entschluß, 종결맺음)의 지속 안에서의 일입니다.”<sup>52</sup> 늑대(lupus) 혹은 자연에서 발원하는 주권 아닌, 신(Deus) 혹은 성사에서 발원하는 주권 아닌, 서로 대립하는 인간 사이 혹은 권력과 무력함의 변증법 안에서 발원하는 주권적 결정상태. 인간인 이상 결코 그런 변증법을 면피할 수 없음에도, 아니 그렇기 때문에 그 변증법-내-지양력의 가동을 결정할 수 있게 되는 인간, 간접 권력적 포어라움을 무위로 돌리면서(지양의 계기로 삼으면서) 도래 중인 결정자. 이것이 실러+슈미트적 기획으로서의 안티-간접권력적 섭정의 힘이 발현되고 있는 한 가지 양상이다.

---

52 Carl Schmitt (1994), p. 32.

## 참고문헌

### 자료

- 슈미트, 칼(2012), 나종석 역, 『현대 의회주의의 정신사적 상황』, 길.
- 실러, 프리드리히 폰(2008), 장상용 역, 『돈 카를로스』, 문학과지성사.
- 홉스, 토마스(2013), 이준호 역, 『시민론』, 서광사.
- 홉스, 토머스(2008), 진석용 역, 『리바이어던』 1권, 나남.
- Hobbes, Thomas (2012), *Leviathan*, Edited by Noel Malcolm, *The English and Latin Texts, Clarendon Edition of the Works of Thomas Hobbes*, Oxford: Clarendon Press.
- Hobbes, Thomas (1998), *On the Citizen*, edited and translated by Richard Tuck and Michael Silverthorn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Hobbes, Thomas (1651), *Leviathan or The Matter, Forme and Power of a Commonwealth Ecclesiasticall and Civil*, London: Andrew Crooke[스미소니언 연구소 스캔본].
- Hobbes, Thomas (1647), *Elementa Philosophica de Cive*, Amsterdam: Apud Ludovicum Elzevirium[로마 국립도서관 스캔본].
- Schiller, Friedrich (1962), *Friedrich Schiller Sämtliche Werke*, Bd. 2, München: Carl Hanser Verlag.
- Schiller, Friedrich (1787), *Dom Karlos. Infant von Spanien*, Leipzig: G. J. Göschen[뉴욕 공공도서관 스캔본].
- Schmitt, Carl (1994), *Gespräche über die Macht und den Zugang zum Machthaber*[1954], Berlin: Akademie Verlag.
- Schmitt, Carl (1965), "Die vollendete Reformation: Bemerkungen und Hinweise zu neuen Leviathan-Interpretationen," *Der Staat*, Vol. 4, No. 1, Duncker & Humblot.
- Schmitt, Carl (1950), *Ex Captivitate Salus: Erfahrungen der Zeit 1945/47*, Köln: Greven Verlag.
- Schmitt, Carl (1938), *Der Leviathan in der Staatslehre des Thomas Hobbes: Sinn und Fehlschlag eines politischen Symbols*, Hamburg: Hanseatische Verlagsanstalt.
- Schmitt, Carl (1926), *Die geistesgeschichtliche Lage des heutigen Parlamentarismus*, 2. Auflage, Berlin: Duncker & Humblot[초판 1923].

### 논저

- 바우만, 지그문트(2014), 안규남 역, 『위기의 국가』, 동녘.
- 윤인로(2020), 「이반 카라마조프의 대심문관 또는 사목권력적 대표론」, 『순천향 인문과학논총』 39, 순천향대학교 인문학연구소.
- Terpstra, Marin (2013), "The Political Theology of a *Potestas Indirecta*," *Aspects of*

*Christian Social Thought*, Vol. 41.

원고 접수일: 2022년 9월 30일, 심사 완료일: 2022년 11월 7일, 게재 확정일: 2022년 11월 8일

## ABSTRACT

# On the Indirekter Power of 'Vorraum'

Yoon, Inro\*

This article analyzes 'indirect power', which secretly influences decisions in politics, along with 'vorraum' (the waiting room in front of the decision maker's room). Firstly, vorraum is analyzed as a preemptive and pre-existing interfering power that precedes sovereign decisions and provides the option itself for such decisions. It is a form of post-political power that accumulates the incidental profits of govern. Secondly, focusing on Carl Schmitt's question of 'who has direct access to decision making', the union of confessor and governor in Schiller's *Don Carlos*, is read into the indirect power of divine+secular. In the process, it is analyzed how such a divine+secular vorraum is stopped by the political theory/theism of the character Marquis Posa. The third part examines the process by which the actions of divine agents, or messianic fossa, function as a force to restore directness in the political. In the process, I analyze another indirect body of divine+secular power (a compromise between the Grand Inquisitor and the King) that built a vorraum in front of God while suppressing such messianic power in advance. Finally, as a Schmittian basis for expressing the ambivalence of such a deterrent's power (Katechon), the motto 'homo homini homo' is presented in

---

\* Research Professor, NRF.

relation to the conditions of true decision.

**Keywords** the Regental, Vorraum, Indirekter Power, the Messianic, Grand Inquisitor, Katechon, *Don Carlos*

